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 결정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후처리의 집과 향후의 과제를 던져주면서 여러 측면에서 만만찮은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누구도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에서도 그 전조를 감지할 수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치판에서의 여야 대결은 상생보다는 사생결단으로, 국익보다는 당리당락의 싸움으로 일관하는 것이 일종의 관성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러한 충돌과 대결 양상이 여야라는 정당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 과거와는 그 양상이 확연히 달라진 하나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집권층이 안정을 선호하고, 야당은 변화를 요구하였지만, 오늘날은 대통령과 여당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야당은 그것을 거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집권 여당과 대체로 동일한 상황인식을 갖는 국민들과 공무원, 법관, 교수단체, 시민단체, 언론매체들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여당의 변화에도 예견된 행정수도의 이전, 보안법 폐지, 과거사정산 등을 가능한 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대항 세트를



불자 세상보기

윤 세 원
인천전문대 교수 · 우리선선우 운영위원장

관습헌법과 '갑신칠적'

형성하여 총체적인 대결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곱지 않은 저주의 언사를 퍼붓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서 법리적 타당성도 그렇게 분명하지 못하고, 논리적 설득력도 충분치 못한 관습헌법이라는 용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결국 대헌까지 동원하는 기발한은 결국 대항 세트의 손을 털어 주기 위한 묘수로 보이며, 재판관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현재는 기독교의 관성체제를 유지

시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었고, 그 대가로 그들은 국가의지의 최종적인 결정을 시장의 조종거리로 만들었다. 성매매와 호주제도 관습이라는 준거를 들이대면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무리한 법 해석에 저항하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는 조짐을 대항적 지지도와 명성을 가진 어느 철학자가 그들에게 불어준 '갑신칠적'이라는 딱지에서 읽을 수 있다. 나는 현재의 이런 결정이 지키고 유지되어야 할만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것인지 아니

면 박제된 관습이 산 사람의 미래를 망치는 불행한 결정인지를 가리켜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관습헌법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법리논쟁에 한가지 의견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안이하게 대처하여 정부정책을 따른 국민들의 희망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 집권여당과 노대통령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인식과 시대정신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현실인식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그들의 시대정신은 조선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천명하였다. 역동적 변화의 세기인 지식정보 사회에서 능동적 현실인식과 전근대적 시대정신의 소유자들에게 국가사결정의 마지막 과정을 맡기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마냥 안타까울 뿐이다. 역사란 무상(無常) 연속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고, 사회는 변화의 현장이며, 변화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불교환경의제21의 수립은 오늘날의 불교가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과 구체적인 실천활동이다. 그리하여 지난 2년간 불교환경의제21의 수립을 위한 2차례의 불교환경워크숍 등을 통하여 불교환경의제21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10월 28일 불교환경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제3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알다시피 불교환경의제21은 환경과 생명에 대한 불교계의 약속이고, 실천방안이다. 그러기에 단순히 일회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작성된 의제21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부 터, 하고 싶은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100여개의 크고 작은 불교계내의 환경문제를 통하여 그것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피해(被害)이건, 아니면 내부적 요인에 의한 자해(自害)이건 간에 그동안의 불교계의 역량을 모아 불교환경의제21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의제' 보다 중요한 건 '실천'

는 그래도 불교계 내부의 실행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성적인 참회를 바탕으로 한 지난 2년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불교계의 기본적인 환경에 관한 청사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일부의 불교환경단체와 사부대중과 종단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의 범위를 불교계 전체로 확산하고, 사회로 환원하는 실천적인 활동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불교환경의제2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계 전체의, 특히 종단내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을 추진하기 위한 종단내부의 관련법 제정과 조직의 정비, 예산의 확보, 교육 홍보 등의 제21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의 준비가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불교환경의제21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무국의 설치와 각 교구별 조직정비,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불교계내의 모든 사부대중들도 이 시대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면서 현실과 우리의 생활속에서 불교환경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 이병인(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돈에 물든 교육

차라리 조금 배워 도리를 이해하지 않겠, 많이 배우기만 하고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열반경> 과외교사 8백여 명과 학생 3천여 명을 회원으로 모집, 과목당 1백만 원 이상의 고액과외를 일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기에 유명 인터넷 과외알선 사이트가 검정고시 출신을 명문대 졸업자로 둔갑시키는 등 교사들의 학력은 물론 학원 강의경력까지 위조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뼈뿔 어진 사교육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뻔하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 있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좋은 대학, 직장에 취직해야 '대접'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다. 교육이 지나친 입시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 '돈'에 물들었다는 점이다. 이라다보니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액과외가 판치고 공교육이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면서, 학교 교육 자체는 붕괴됐다. 결국 교육이 '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된 셈이다. 현실이 이쯤 되다보니, 스승도 제자도 없는 시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으로 스승도 사교 제자도 살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그럼 부처님은 참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하잘 것 없는 도(道)를 배워 그릇된 견해를 믿게 해서서 안 된다. 도리에 맞게 행위를 익히고 배우되, 이를 거역서는 안 된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 적어도 오늘날의 교육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비싼 교육=명문 대학'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자금의 현실이 씁쓸하다. ■ 김철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회활동 불길 '활활' 타오르길

지금까지 불교계가 하는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다. 불우이웃 돕기 모금 현황 리스트만 봐도 개인사 단체들의 이름은 줄을 잇고 있는데 불교계 단체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497호 대안학교 기사를 보면서도 '역시 불교계는 사회 참여를 참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개인교와 워낙 신도 조직이 체계적이고 재정도 좋아 사회참여를 통한 전도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유명하지만 원불교가 우리 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에는 불라음을 금치 못했다. 신도 수로 보면 원불교와 불교의 명차이는 엄청나지 않은가. 항상 뒤처지는 듯한 불교계를 보며 이리저리 불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그러나 사회참여의 불씨는 발견할 수 있었다. 불교계에 하나 밖에 없다는 '작은학교' 때문이다. 종단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뜻있는 불자들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아름답게 여겨졌다. 종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영리 시설의 재정 상태가 그리 넉넉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쉽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하기는 힘들다. 종단의 지원을 바라기보다 스스로 팔을 걷고 나서서 불자들의 활약상이 더 기대되

고 감동적인 것은 악전고투를 마다않는 용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불교>가 앞으로 불교계의 사회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많이 발굴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박길남(서울 성북구 중앙동)

종교법인법 제정 필요하다

요즘 절에 다니다보면 상식 이하의 스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사찰을 스님이 인의적으로 매각했다는 등 불미스런 일들이 불자들에게 회자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비단 불교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주변사람들과 이야기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종교의 폐해가 심각한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종교법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던 모양이다. 종교단체는 공익성이 강조되는 비영리 단체다. 종교단체의 재산이나 수입이 특정한 사유물이 되어서 안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종교가 성역으로 간주되어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다. 현 법률체계로는 종교단체가 부패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종교단체의 투명성

을 제고할 수 있는 종교법인법이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도덕한 종교단체를 규제하는 일은 이 보다 앞서서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종교단체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종교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제공해 사이비종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휘(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조계종 인권위에 바란다

조계종이 불교의 이념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인권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 없다. 사실 불교에는 어느 종교보다 우수한 인권의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며 무차의 법을 설했다. 이러한 토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교는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이웃 종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회적 폐지 운동을 비롯한 인권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다. 사회적 폐지운동과 같은 큰 이슈에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보듬는 일까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이번 조계종 인권위 출범을 통해 불교가 명실상부한 인권종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제갈도(서울 종로구 내자동)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세요.

심마니 토종오가피

오가피 묘목분양 **오가피 묘목분양 상담**
공장 및 농장견학회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禪 카이로프락틱 제3기 교육생 모집

- 1. 설립취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주며 베푸는 따뜻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에 힘쓰고자 설립함.**
- 2. 교과 목:** 1) 카이로프락틱(허리, 어깨, 골반, 경추등 척추교정술) 이론 및 실기
2) 해부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3) 경락, 스포츠 마사지
※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강의함**
- 3. 교육기간:** 1) 2급과정 2개월(총 108시간)
2) 1급과정 1개월(총 54시간)
- 4. 지원자격:** 학력 경력 제한없음
- 5. 입학일시:** 2004년 11월 11일(목) 13:00
- 6. 원서교부 및 접수:** 본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11호

인사말씀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 2기 교육생을 수련시키면서, 많은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 스님과 불자님들의 반응 또한 기대 이상이라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본 연수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성을 다해 -를 매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